



오늘의 날씨와 생활

11월 13일 수요일 음 10월 17일 (9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도는 낮동안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able with 2 columns: Time (오전, 오후) and Weather (강수 확률, 습도, 강수량, 서리폭)

Table with 2 columns: Time (해돋이, 해질, 일출, 일몰) and Duration (시간)

Table with 2 columns: Day (내일, 모레) and Weather (구름 많음, 맑음) with temperature ranges.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생활·안전, 식중독, 감기가능지수) and Status (관심, 보통)

월드뉴스

혼돈의 홍콩... 이달 시위체포자 500명 '홀썩'

성당까지 진입해 강경 진압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홍콩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 이달 들어 체포된 시위자가 무려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시위자 구타하는 홍콩 경찰.

체포된 사람이 무려 260명을 넘었다. 지난 6월 초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지난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자의 수가 3000여 명으로, 이달 들어 체포된 사람까지 합치면 총 체포자의 수는 3600명에 육박한다.

홍콩 경찰의 검거작전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제 쇼핑몰, 대학, 성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진입해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천주교 홍콩교구는 경명을 내고 "성스러운 성당 내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리일보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

건강&생활

신윤경



신윤경
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

얼마 전 사람을 대신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면접관 역할을 수행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서점, 넷플릭스가 우리의 기호에 맞춰 음악, 책, 영화, 요리법, 심지어 친구를 소개해주고, 스마트폰과 TV가 우리와 대화하는 세상이니 놀랄 것도 없다.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다움을 묻다

intelligence)이 출현할 것이라 예고한다. 그 예상이 맞든 아니든 인간만이 할 수 있던 많은 일들이 기계에 의해 대체되리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환경오염이나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한 AI가 인간보다 영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그렇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사회를 슬플게 했다.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뉴스는 잇을만하면 다시 내리는 여름 장마처럼 포털사이트를 수시로 잠식한다. 현대인 10명 중 1명이 살면서 한번 이상 우울증을 앓고, 1명은 자살을 고려한다. 고립의 경향이 내부를 향하면 우울증이 오고, 외부로 향하면 분노로 폭발한다. 그러므로 우울증 증가와 폭력·복수 범죄의 증가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자 몸이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할 수 있다. 몸이란 정신과 신체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다. 우울증을 포함한 현대인의 많은 병이 관계와 몸을 잃어버려 생긴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신과 의사가 몸의 자각을 외치는 것이다!

열린마당

안전신문고에 2분만 투자해 보세요



강희동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얼마 전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현장에 가보니 불법주정차 차량은 떠나고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2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었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주정차뿐만 아니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등 소방시설을 포함한 소방 관련 시설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승용차 기준 8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를 확인했을 때는 단 2분이면 스마트폰을 활용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앱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눌러 번호판과 소화전 등 시설이 보이게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찍고 발생지역만 선택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나의 신고'에 들어가면 신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문자로도 받아볼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도 3주간(11월 5일~26일)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11월 27일 2회(13-16시, 19시~21시)에 걸쳐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의 날로 지정해 단속하기로 했다. 매년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적발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올해(10월 말 기준)도 46건이 적발돼 도민들의 의견 개선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기초질서 지키기 1년, 어디까지 왔을까



송병훈
제주시 용담1동주민센터

제주시는 작년 이맘때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아젠다 선포식을 개최했다. 그 배경에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쓰레기, 주차와 교통, 주거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선포식을 출발점으로 지난 1년 동안 일회용품 적게 쓰기, 올바른 분리배출하기,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보행도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상가·내 집 앞 도로 위 물건 적치 안하기 등 6가지 실천과제를 목표로 자생단체 등 시민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시민 기초질서지킴이 구성 등 시

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민주도형 의식변화 운동으로 추진해 왔다.

용담1동도 지난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회원과 학부모회 및 학생 등 31명을 '기초질서 지킴이'로 위촉했다. 또한 올해 초에는 시민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쓰레기·주차·도로사유해 3대 불법·무질서를 근절하고 더 나아가 기본이 바로 선 용담1동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매일 2회 지속적으로 위반행위 단속에 앞장서 왔다.

그러서인지 요즘 골목에 다닐 때 도로에 불법 적치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상가주변 도로에 간간히 놓여 있는 불법적치물을 볼 때는 더욱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젠다 선포식 이후 1년 동안 이만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이 운동에 동참해주신 자생단체 등 많은 시민의 힘이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구현'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전세 렌터카 advertisement with details about car rental services, insuranc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WONCAR.

제주도정 소식 (Jeju Government News)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including job openings, safety campaigns, and educational events.

제주시정 소식 (Jeju City News)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including job openings, safety campaigns, and educational events.

서귀포시정 소식 (Seogwi-do City News) listing various public notices, including job openings, safety campaigns, and educational events.